

진도 팽목항 4·16기억공간 조성 고민

광주서 집담회…기록관·기림비·표지석 등 필요성 제기
“해양안전관과 기능 중복”…진도군·지역민 유보적 입장

세월호 참사 추모를 위해 진도 팽목항에 '4·16기억공간'을 조성하자는 주장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세월호 유가족 등은 진도 팽목항에 4·16 기억공간을 조성해 추모의 장소로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전남도와 진도군은 항 인근에 기억공간과 기능이 중복되는 국민해양안전관이 들어설 예정이라며 기록관 건립에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진도 지역 사회에서는 세월호 기억공간(추모공간)의 건립 의의가 좋지만 추모의 개념이 강할 경우, 진도의 지역 축제나 각종 행사에 제약을 받을 수 있어 경제활성화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조심스런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진도는 청정해역과 윤림산방 등 관광지로서 유명하지만 추모

공간이 들어서면 자칫 관광산업 활성화와 미래 산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이다.

이 때문에 4·16기억공간을 조성하더라도 진도 지역사회와의 협의를 통해, 추모·안전교육의 공간이면서도 지역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중지를 모아야 한다는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다.

지난 10일 광주시 동구 금남로 5·18민주화운동기록관에서는 '팽목 4·16 기억공간 조성을 위한 집담회'가 열렸다.

이번 행사는 4·16 기억공간의 중요성과 기록관의 의의, 기록관과 추모관은 어떻게 다른지 논의해 보는 자리로써 토론자로는 이봉문 천주교광주대교구 신부, 김화순 팽목국민대책위공동위원장, 고재성 진도 세월호대책위 대표, 김희송 전남대학교 5·18

연구소 연구교수 등이 참여했다.

집담회에서는 ▲지상 1층 규모의 팽목 4·16기록관 ▲소공연이 가능한 4·16공원 ▲4·16 희생자기림비 ▲옛 희생자 안치소 자리에 표지석 건립 등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들은 “기억공간 조성을 통해 진도군민의 희생정신을 재평가하고 이들의 트라우마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집담회에 앞서 지난달 25일 전남도에서 열린 '팽목 4·16 기억공간 조성제안 검토 1차' 간담회에서 진도군은 “인근 서망항에 건립할 국민해양안전관 안에 추모전시관이 들어간다. 팽목항과 500m 떨어진 곳에 세워지는 국민해양안전관과 목적과 기능이 중복돼 같은 시설을 굳이 세울 필요가 있느냐”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한 전남도도 오는 2020년까지 400여억원을 들여 팽목(진도)항에 지상 2층·건축면적 1100㎡ 규모의 터미널을 비롯해 부두의 편의시설과 접안시설을 완공할 예정이어서 4·16기억공간 조성 방향과는 배치

되는 입장이자.

김화순 팽목국민대책위 공동위원장은 “참사현장은 있는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기억공간의 장소성에 대한 이해도가 전무한 진도군과 전남도는 국민해양안전관 내 전문성과 상징성이 떨어지는 추모관으로 대체하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희송 전남대 교수는 “5·18과 4·16 모두 국가 폭력의 속성은 동일하다. 5·18민주화운동이 겪어왔던 일들을 4·16이 그대로 겪고있다”면서 “기록관의 경우 특유의 장소의 상징성을 살려서 중복되지 않게 해야 한다. 콘텐츠나 좋은 시설도 중요하지만 장소(공간)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중요해 기억공간의 역할은 4·16에 대한 객관적 진실을 복원하고 기억하고 전달하는 공간이어야한다. 진도군의 입장은 당연할 수 있다. 군민들 스스로 기억의 공간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자각이 있어야 하고 직접 만나 이를 설득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광주FC 홈 개막전 열린 응원
비가 내린 10일 광주시 서구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광주FC와 아산 무궁화의 K리그2 2019 2라운드 홈 개막전에서 7600여 명의 관중이 열린 응원을 펼치고 있다.

충장축제 10월 2일부터 닷새간 열린다

광주 동구 일정·내용 등 확정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대표 축제로 자리잡은 광주 동구 '추억의 충장축제'가 올해는 10월 2일부터 닷새간 펼쳐진다.

10일 동구에 따르면 '추억, 세대공간'을 주제로 제16회 축제가 충장·금남로, 예술의 거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일원에서 10월 첫째 주 수요일부터 주말까지 이어진다.

'7080'에서 '8090'까지 대중문화 콘텐츠 소재로 30대 이상에게는 추억을, 10

~20대에게는 새로운 경험을 선사한다.

축제 기간 중 하루는 '아시아 데이'로 정해 각종 음식과 의상, 음식, 놀이 등 문화를 공유해 외연을 넓힌다.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해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거리퍼레이드에도 아시아적 가치를 포함한다. 또 젊음을 상징하는 정바지를 드레스코드로 다양한 이색 행사를 준비한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백운광장 침수피해 자동경보 시스템 구축

광주 남구 책임 공무원 지정도

광주시 남구가 지난해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가 발생한 백운광장 주변에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10일 남구에 따르면 백운광장 주변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책임 공무원을 지정하고, 자동음성통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주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백운광장 주변과 주월동 명성아파트, 봉선동 일원을 중심으로 '공무원 책임 구역'을 지정해 운영한다.

재난상황 신속 전파를 위해 오는 5월까지 주월동 정일품 사거리 앞에 자동음성통보시스템과 재난영상정보시스템(CC-TV)을 새롭게 설치할 계획이다.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은 구청 재난 상황실에 마련된 재난 예·경보 시스템과 연동돼 재난 발생이나 우려 상황을 스피커(44개)를 통해 주민들에게 신속히 전달하게 된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트, 봉선동 일원을 중심으로 '공무원 책임 구역'을 지정해 운영한다.

재난상황 신속 전파를 위해 오는 5월까지 주월동 정일품 사거리 앞에 자동음성통보시스템과 재난영상정보시스템(CC-TV)을 새롭게 설치할 계획이다.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은 구청 재난 상황실에 마련된 재난 예·경보 시스템과 연동돼 재난 발생이나 우려 상황을 스피커(44개)를 통해 주민들에게 신속히 전달하게 된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무 06:50
해진 18:36
달뜨기 09:24
달짐 22:51

해안가 시설물 주의

오후부터 비 오는 곳 있으며 해상에 바람 강하게 불겠다.

광주	차차흐려져 비	3/12	보성	구름많음	1/12
목포	차차흐려져 비	5/11	순천	구름많음	5/14
여수	구름많음	6/13	영광	차차흐려져 비	1/11
나주	차차흐려져 비	0/13	진도	차차흐려져 비	5/11
완도	구름많음	5/12	전주	차차흐려져 비	2/12
구례	구름많음	1/13	군산	차차흐려져 비	3/10
강진	구름많음	2/13	남원	구름많음	-1/12
해남	차차흐려져 비	1/12	흑산도	차차흐려져 비	6/12
장성	차차흐려져 비	0/12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앞바다	북서~북	1.0~1.5	서~북서	0.5~1.0
남부 앞바다	북서~북	1.5~3.0	서~북서	1.0~2.0
남해 앞바다	북서~북	1.0~2.0	서~북서	0.5~1.0
남해 서부 앞바다(동)	북서~북	2.0~3.0	서~북서	1.0~2.5
남해 서부 앞바다(서)	북서~북	2.0~3.0	서~북서	1.0~2.5

◇물때

목포	간조	만조
	10:07 22:23	04:56 17:06
여수	간조	만조
	05:31 17:50	11:46 --:--

◇주간 날씨

12(화)	13(수)	14(목)	15(금)	16(토)	17(일)	18(월)
4/13	1/12	2/14	3/13	3/15	2/16	2/16

11일·15일 5mm 안팎 비…미세먼지 주춤

이번주 광주·전남은 다소 포근한 가운데 봄비가 2차례 올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주말부터 내린 비가 월요일인 11일 오전 잠시 그쳤다가 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오후부터 다시 내리겠다”고 10일 밝혔다.

예상 강수량은 광주와 나주·장성 등 전남 일부지역에 5mm 안팎으로, 비는 밤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도~영상 6도, 낮 최고기온은 11~13도로 전망된다.

12일은 고기압 영향으로 대체로 맑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광주 4도, 전남 1~5도 평년(광주 1.7도, 전남 영하 0.2~영상 4도)보다 1~3도 높아 비교적 포근하겠다.

기상청은 오는 15일에도 한차례 비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봄비가 자주 온데다 대기 순환도 활발한 탓에 11일, 12일 미세먼지 농도가 '보통' 수준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김한영 기자 young@

한빛원전 1호기서 화재…10여분만에 진화

9일 새벽 2시20분께 영광군 한빛원전 1호기(950MW) 격납건물(콘크리트 돔 모형) 내에서 화재가 났다.

불은 격납건물 내부 원자로 냉각재 배관 보온재에서 일어났으며, 발전소 소방대에 의해 10여분 만에 진화됐다고 원전 운영사인 한국수력원자력은 전했다.

이날 새벽 2시20분 1호기 원자로 건물 내부에서 화재경보가 울림에 따라 자체 소방대가 출동, 소화기 4대를 이용해 14

분만인 새벽 2시34분께 완전 진화했다는 것이다.

한수원 관계자는 “(불이 난) 1호기는 현재 정기 점검 중으로 방사성물질 외부 유출 등 안전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원전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현장 감식 등을 거쳐 화재 원인 및 방화 사고 여부를 조사 중이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태양광발전소 연계 ESS에너지저장장치

- 태양광 발전사업자 사장님들께 희소식!
- 태양광 발전소에 ESS 설치시 REC 가중치5.0배
- 설치방법 : 본인부담10%·융자90%
- 1년거치 14년상환 (1개월이내 설치완료)

★태양광발전사업소, 매도·매수 하실 분 상담환영 **총괄본부장 010-9896-9754**

★태양광분양 및 태양광 현재설치중, 설치완료, 개발행위완료, 선로확보, 물건 다량확보

제품

LG ESS 삼성SDI SAMSUNG

ESS · 설계 · 시공

경제혁신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태양광 발전소에도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대폭 확대

- 태양광 + 에너지저장장치(ESS)의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제(가중치 5.0 부여) -

정부와 지자체, 에너지산업 활성화에 협력하기로

- 산업부 장관, 4개 단체장(광주·전남·전라·제주) 에너지산업 활성화 공동약속 체결
- 에너지산업 활성화 공동협력 체결을 통해 전면적인 규제 정비 개시
- 지자체, 에너지산업 특별조례 제정 추진
- 서해에 해상풍력 등 대규모 프로젝트(4조원 규모) 추진 가속화에 공동 노력

ESS통합시스템 15년 효율보증서 발행 (무정전 전력 공급장치)

주 소 | 순천시 중영로 317 2층

전 화 | ☎061-752-7000 Fax | 061-751-6000

총괄본부장 | 010-9896-9754

전국 지사·대리점·영업자 모집

대표전화 1577-8963

전남지사 010-6838-3366

산·재생에너지 전문기업

(주)성광에너지